



Timor Journal 11월 호

# \*차례

1. 일정

2. 활동

-에큐메니컬

-중간평가

-청년의 날

-커피

-망고

-나의 효과, 나비 효과

-에피소드

3. 개인 소감

4. 갤러리

# 간략하게 살펴본 동티모르의 11월



DOMING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 -호텔에서 아침밥을~	2 -대청소	3 -휴식
4 -휴식	5 -음악 교실 -한국어 교실 -Atti Klase 자체 중간 평가 회의	6 -애큐메니컬 수업 참여 -쓰레기 줍기 -Afonso 탄신일 -센터 글씨 작업 마무리	7 -음악 교실 -한국어 교실 -한국어 교실 3차 홍보	8 -미술 교실 -아이들과 함께 놀이	9 -STAFF회의 -교실 환경 미화 -한국어 교실 4차 홍보	10 -센터 페인트칠 -10월 보고서 전송
11 -대청소 -중간평가 준비회의	12 -청년의 날 -'청년의 날' 미사와 행사 참여	13 -애큐메니컬 수업 참여	14 -음악 교실 -Afonso의 한국어 교실 첫번째 -동화 간사님 입국 & 대화	15 -미술 교실 -도서관 꾸미기 -중간평가 준비	16 -중간평가 시연회 -중간평가단과 저녁식사	17 -중간평가 PPT 발표 -중간평가단과 Cristu Rei 감
18 -휴식	19 -음악 교실 -한국어 교실 -퇴근할 때 비에 훌딱!	20 -애큐메니컬 수업 참여	21 -음악 교실 -한국어 교실	22 -미술 교실	23 -STAFF와 'End Poverty' 캠페인 회의	24 -페인트칠 (마을사무실 &마을 교회)
25 -해변으로 소풍~~	26 -음악 교실 -과학 교실 -한국어 교실 -동화 간사님 출국	27 -아이들과 함께 놀이	28 -대학 졸업 축하 파티에 감 -성탄절 트리 꾸밈	29 -과학 교실 -내일 소풍 준비	30 -아이들과 동티모르 저항 기념관 으로 소풍~	

# 평화의 시작, 에큐메니컬(Ecumenical)

동티모르 YMCA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에큐메니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Ecumenical)은 '교파나 교회를 초월한 세계 교회주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인 동티모르에서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 같이 있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종교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에큐메니컬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 아띠 끌라쎬 같이 오전과 오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동티모르 YMCA 사무총장님(개신교 신자)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Adi이고, 현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보통 먼저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놀이를 한 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종이를 이용한 만들기로 끝을 맺습니다. 노래는 찬송가와 동요를 적절하게 섞어서 알려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재미있고 간단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즈음, 아이들은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는 합니다.

끝으로 종이나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이용해서 만들기를 합니다. 고양이를 오려 뒤에 '하느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적는 것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그려서 오린 뒤 큰 종이 나무와 함께 벽에 붙여서 커다란 과일나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에큐메니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들은 옆에서 같이 아이들과 참여합니다. 선생님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도 우리와 비슷한 또래이지만, 다른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해서 인지 좀처럼 인상이 찌푸려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프로그램은 '떼제(Taizé)'입니다. 'Taizé'라는 말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Taizé'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마을에서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 기도와 성찰 등을 하는 공동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Taizé' 프로그램에서는 개신교 신자인 사무총장님과 대부분인 카톨릭 신자인 마을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다같이 기도를 드리고, 생각을 나눕니다. 먼저 잔잔한 찬송가를 계속해서 부름으로써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글을 읽고 모둠 별로 모여 그 글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눕니다.



이 'Taizé'에 함께 참여하면서 종교 자체에 대한 엄숙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과 엄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종교, 같은 교파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요일 오후에 모여 자신을 성찰하고 신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종교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분 정도 조용하게 신에게 각자 기도를 드릴 때 엄숙함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에큐메니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배우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엄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교파를 잔잔하게 포용하고 수용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저희들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By. 최호진



# 쉬어가는 창숙이의 에피소드

## ;충격의 도가니 그 진실은???

아이들이 가족 관계는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 형제가 많기도 하고, 친척끼리 모여 사는 경우도 많아서 아이들의 가족 관계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아이들이 가끔 '애는 누구 동생이고, 애랑 애는 친척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패닉에 빠지기도 한다.

-----

---

## ;작은 기도

동티모르는 인구의 90%이상이 카톨릭 신자이다. 카톨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곳 티모르에서는 집에 기도를 드리는 작은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센터 바로 옆에 사는 '소냐'집을 지나치다가 소냐가 들어와서 기도를 드리고 가라고 해서 잠시 들렀었다. 작은 탁자위에 마리아 상과 주변을 꽃으로 장식해 꾸며 놓았다.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아주 짧게 머물렀지만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것 같다.



Sonia

Tasia

# 더 성장하기 위한 숨 고르기 ; 중간평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다른 국가의 중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라온아띠 파견 국가 중 처음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처음 중간평가 일정을 통보 받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첫 타자라니! 정말로 라온아띠 활동 중반부, 누군가에게 우리를 보여줘야 하는 순간.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중간을 되돌아 보며 우리의 활동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중간평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팀원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며 했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었다. 활동 중반을 맞아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팀으로써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아띠 클라세의 전반적인 피드백과 서로가 아띠클라세를 준비하며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했다. 각자 다른 사람인 만큼 생각

도 집중하는 면도 달랐다. 처음의 기대와 목표를 가졌던 것과 조금 다름에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도 있고, 활동보다 활동을 하며 느꼈던 감정, 생각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아띠 클라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달라질 모습들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2달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 활동 하며 들었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라온아띠 동티모르팀으로 만들어갈 목표를 세웠다.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팀원의 이야기들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떤 활동을 하며 앞으로 나아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함께 한다는 것, 성장해 간다는 것, 생각을 맞춰간다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를 향한 노력과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라운아띠 동티모르팀이 남은 두 달간 되새기며 지낼 목표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1. 교육과 활동 자체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
2. 동티모르의 삶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느끼고 돌아가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 간략한 활동을 파워포인트로, 지난 두 달 간의 생활을 영상으로 준비했다. 센터의 스텝들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와 영상을 보여주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중간 평가단 분들과 총장님에게 최종 중간 평가 발표를 했다. 중간 평가단 분들은 센터와 우리들의 활동을 둘러보셨다. 활동과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나누었다. 떠나시기 전 이곳의 크리스토퍼 레이 해변을 함께 방문했다.

라운아띠 8기 첫 번째 중간평가. 동티모르팀의 중간평가는 그렇게 끝이 났다. 국내 훈련을 함께 했던 간사님이 오시지 못하셔서 솔직히 아쉬움도 남긴 했지만 때맞춰 동티모르에 와주신

양동화 간사님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동티모르팀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힐링이 되었다. 또한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 와주신 평가단 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긴장을 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 팀 전체가, 개인이 각자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중간평가는 끝났지만 우리의 활동은 아직 절반이 나 남았으니까! 스스로를 되짚어본 만큼 더 짝찬 라운아띠 생활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By. 김준기



# 티모르의 자유를 위해 싸운 청년들을 기억하라

11월 12일 “청년의 날” 행사가 YMCA에서 진행되었다. 이른 아침 센터로 나가 청년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청년의 날이라 길래 행사 소식을 듣고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하거나 즐거운 날 인줄로만 알았다. 1991년 이곳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의 산타크루즈 공동묘지에 많은 청년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 모였다.

인도네시아 군인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청년의 날 이곳 딜리에서는 약 1000여명의 청년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었다. 청년의 날은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맞서다 1991년 희생된 동티모르의 청년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었다.

조금은 이른 7시 반 항상 가던 센터 옆의 크루즈 조벤에 사람들이 모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청년들을 기리기 위한 미사가 진행되었다. 함께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의 날을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YMCA에서 진행된 청년의 날 미사에 참여해 주었다. 지역주민과 스카우트 단원들, 주변 학교에서 찾아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했다. 미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바다로 향했다.

바다에서 다시 한 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다에 꽃을 뿌리고 곳곳에 양초를 켜 놓았다. 그날은 멀리 거리의 곳곳에서 양초가 녹은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의 날 행사를 지켜보며 내가 살고 있는 광주의 5.18이 생각났다. 그 때에도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자유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희생되었다.



동티모르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그분들을 위해 한번 더 기도했다.

이처럼 내가 본 동티모르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처럼 동티모르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다 독립했다.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의 오랜 지배 때문일까? 동티모르에는 아직 곳곳에서 지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동티모르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 크리스트-레이(예수상)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27번째 주로 편입시키고 지배에 두겠다는 의미에서 세운 상이다.

그리고 많은 동티모르 사람들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언어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포르투갈어로 쓰인다.

심지어 박물관을 방문하면 가장 크게 쓰여져 있는 주요 언어가 포르투갈어다. 이곳의 언어인 테툼어와 영어는 아래에 조그맣게 써 있을 뿐이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배운다고 한다. 피스커피를 채집하는 사메지역의 커피나무들은 몇 백년 전에 포르투갈이 심어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직은 곳곳에서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행사가 끝나고 센터로 걸어 오며 YMCA센터장이신 마운 제로와 이야기를 나눴다. 마운 제로는 어렸을 때 딜리에서 청년들이 짓밟히는 장면을 직접 보셨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날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동티모르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그 분들과 그 날들을 잊어가는 것이 슬프다고 하셨다.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그 분들을 잊고 있지 않았는지. By. 김준기



# 쉬어가는 호진이의 에피소드



## ;아빠와 아들

하루는 아띠 끌라쎄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센터 앞에서는 한 아이를 부르러 갔어요. 마침 그 아이는 집 앞에 있길래, 빨리 오라고, 빨리 가자고 불렀어요.

그 때 옆에 계시던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한국 아빠가 너 부르니, 빨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전 당황해서 아빠가 아니라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한국 아빠한테 가라고 계속 장난치셔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어머니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비록 그 아이는 싫은 표정을 제대로 지었지만서도...



# 나무열매부터 추출까지

## 동티모르 커피이야기

**라**온아띠 동티모르팀이 있는 동티모르 YMCA에서는 ‘공정무역 피스커피’라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커피 수확철이 끝나고 한국으로 커피를 보내는 작업을 마친 요즘, 아띠들은 수출을 하고 남은 2012년의 따끈따끈한 핫 커피를 마시고 있다. 손이 조금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로스팅을 하고 커피를 갈아 천으로 만든 커피망에 조금씩 물을 부어 커피를 내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주로 마시는 커피원두의 품종은 크게 로드부스터와 아라비카로 나뉜다고 한다. 로드부스터는 대량재배가 가능하고 양을 조금만 써도 커피의 맛과 향이 많이 나는 편이다. 무엇보다도 원두의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이 로드부스터 품종이 쓰인다고 한다. 그에 비해 아라비카 원두는 대량재배가 어려워 자생하는 커피나무의 열매를 따낸다. 로드부스터에 비해 맛과 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더 섬세하고 복잡미묘한, 깊이 있는 맛이 느껴진다.

우리가 있는 동티모르에서는 바로 이 아라비카 커피를 채집하고 수출하고 있다.



피스커피는 동티모르의 사메지역의 로뚜뚜 마을과 가브라키마을에서 수확을 하고 있다. 도로 사정이 안 좋아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차를 타고 7시간이나 가야 하는 먼 곳이다. 이곳 사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산속을 돌아다니며 수확한 야생 커피를 YMCA에서 매입해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사메에서 채집되는 사메 아라비카 원두는 산 속 야생에서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자생하고 있다. 지금 사메에서 채집하고 있는 커피나무는 예전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을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이 먹기 위해 심어졌다고 한다.

한 때 식민지배의 상징이기도 한 커피나무가 이제는 사메지역의 주민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가브라키 지역에서는 커피를 막 채집하고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인 '레드체리'를 YMCA에서 직접 구매한다. 로뚜뚜 지역은 이와는 살짝 다르게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그룹 내 개인의 레드체리를 구매하고 소규모 그룹은 레드체리를 한 번 가공한 파치먼트를 YMCA에 판매하고 있다.

사메지역의 주민들은 커피 수확시기가 되면 직접 산으로 올라가 커피를 수확한다. 이때 채집되는 상태를 '레드체리' 라고 부른다. 새빨간 레드체리의 속살 안에는 커피 원두가 숨어있다. 사메 지역에서는 이 레드체리를 가공공장에서 가공해 열매의 껍데기를 벗기는 일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오는 원두를 '파치먼트'라고 부른다. 가공장에서는 파치먼트를 만들고 햇빛에 말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손으로 하나 하나 이물질이 거르는 일을 하는데 이물질을 100% 제거한다. 다른 원두업체에서는 기계로 하거나 대충하기 때문에 못, 돌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우리 피스커피는 100% 수작업으로 하나씩 고르기 때문에 이물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깨끗한 커피를 제공한다.

파치먼트로 가공이 끝난 원두는 자루에 포장되어 수도인 딜리로 내려온다. 수출 전 파치먼트를 한번 더 가공하는 작업을 한다. 파치먼트의 껍데기를 딜리의 가공공장에서 벗기는데 이 작업을 거치면 '그린빈'이 나온다. 동티모르에서는 이 그린빈 상태로 한국에 수출을 한다.

그린빈 상태가 되면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를 해야한다. 그린빈도 콩이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보면 햇빛냄새와 함께 메주냄새가 얼핏 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 그린빈을 직접 로스팅해 커피를 마신다.

요즘 우리 라온아띠들은 수출이 끝나고 남은 2012년산 햇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하지만 그린빈 상태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로스팅 작업을 거친다. 커피를 볶다 보면 소리가 탁탁 나는데 크게 두 번에 나눠 소리가 난다. 커피를 볶다보면 그린빈을 얇게 덮고 있는 실버스킨이 열을 받으며 벗겨져 날아간다. 커피를 볶고 나면 주변에 실버스킨이 이곳 저곳에 떨어져 있는걸 볼 수 있다. 두 번째 소리가 나면 불을 끄고 자체의 열로 익게 놔둔다. 너무 오래 두면 커피자체의 열 때문에 더 익어버리기 때문에 철망에 올리고 커피콩을 식혀야 한다. 취향에 따라 볶는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오래 볶으면 신맛이 날아가고 쓴맛이 더 강조된다. 다 식은 커피콩을 분쇄기에 넣고 갈아 천 망에 넣고 물을 쪼르르 따라 맛있는 커피를 내리면 된다. 신선한 커피일수록 커피가루에 물을 부었을 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온다고 한다.

동티모르산 커피는 신맛이 조금 강한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나도 커피에 대해 잘 몰랐지만 커피를 마실수록 맛에 익숙해 지면서 커피의 다양한 맛을 느껴가고 있다. 라온아띠 동티모르팀의 아침을 깨워주는 신선한 피스커피! 혹시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커피맛이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사메에서 직접 채집한 야생커피의 맛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By. 김준기



# 쉬어가는 준기의 에피소드

## !김준기 아이들 공포증 치료기

사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온아띠 활동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활동 기간 중 상당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게 될 텐데 난 과연 아이들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뭔가 잘 할 수 있을까? 지역훈련을 겪으면서도 가장 걱정했던 점이기도 했다. 사실 난 아이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동티모르에 가서는 어린아이들을 좀 덜 만나겠지 하고 바라기만 했다. 동티모르에 막 도착해서 센터 활동을 시작했을 때 눈앞이 깜깜해졌다. 센터의 활동 대부분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었다.

심지어! 아이들과 말조차 통하지 않는다. 나에게 정말 힘든 상황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많이 서툴렀다. 말을 조금씩 배우고, 다른 팀원들은 아이들과 재잘재잘 이야기도 잘도 하는데, 나는 멍뚱멍뚱 쳐다보기만 하기 일쑤였다. 고작 하는 거라곤 적당히 맞장구 쳐주기와 몸으로 놀아주기 뿐.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어느새 부터  
인가 아이들은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다  
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일까? 더 이상 다른 팀원들에게 아  
이들이 무섭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  
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직 다가  
가서 말을 걸고 뭘 하냐고, 시시콜콜한 이야  
기를 잘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제 내 손을  
잡고 같이 놀자고 하는 어린 친구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어렵지만은 않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고 이름을 기  
억하기 시작했다. 남들에게는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 아이들 공포증을 겪었던  
나에게는 장족의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하하.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기쁘다! 많은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센터에 와서 나를 찾기 시작한다.

덩치가 커서인가 원래 외모 자체가 인상파이기 때문일까?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느새 부터 인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준다! 마을을 가끔 걸을 때 마을에 사는 분들과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든다.

그래도 내 이름 '고메즈' 석자가 불린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하고 낯선 외국인일 수도 있는 나와 인사해 준다는 것이 너무 너무 기쁘다! 가는 날 까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더 친해지고 마음에 그 친구들을 가득 담고 떠날 수 있길! 그리고 나의 아이들 공포증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 망고 이야기\*\_\*

우기가 돌아오며 망고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어요.

티모르에서 처음 망고를 접하게 된 것은 한 봉지에 10센트를 주면 살 수 있는 짜고, 맵고, 매우 신 망고를 먹으면서예요.

우리들은 망고에 매혹 되었고 그 이후 우리는 맛있는 망고를 찾아 센터 근처시장, 리어카, 마트 앞 작은시장, 큰시장 등을 돌아다녔어요.

티모르에서는 길가에 있는 나무에 열려있는 망고를 나무타기가 가능한 사람 아무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 망고를 수확해 판매해요.

이렇게 맛있는 망고는 자연에 맡겨져 복불복으로 쑥쑥 자라나요. 그래서 망고들은 크기가 어린아이들 얼굴보다 크기도하고, 어린아이들 주먹만 하기도 해요.



또 떫은 맛, 신맛, 단맛은 조화도 제 각각으로 스스로의 직감을 믿고 사야해요. 맛 없는 망고 5-6봉지 사는 날은 그것들을 입에 꾸역꾸역 넣어야하는 재앙이 닥치죠. 이러한 망고는 성인 주먹 크기 5-6개가량을 봉지 넣어 1달러에 판매하는데 가끔은 리어카를 보고는 신나서 달려가 가격확인을 하지 않고 봉지를 뜯어 덤터기를 쓰는 날도 있지만 ‘그러면 어때?!! 망고만 맛있으면 그만이지!!!’

설익은 망고부터 망고가 많이 무르익은 최근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망고는 300개 쯤 되었을까요?? natalia의 목표 망고 1000개 먹기를 초과달성하고 집에 갈 수 있을 듯해요?! 그와 더불어 도나의 망고 해체하는 솜씨도 나날이 늘어가 칼도나 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나날이 칼을 만지는 품이 능숙해지고 있지요.

By. 박도나



# 쉬어가는 다해의 에피소드

## : jambu

센터 스텝들과 어느 주말 교회 페인트칠을 하였었다. 게으름을 피우던 중 아이들이 많이 먹고 다니는 잠부라는 과일이 대롱대롱 달린 나무가 눈에 들어왔고 멍하니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나를 본 스텝언니가 “먹고 싶어?”라고 물었고 자동반사로 “응!응!응!!!”을 연발한 덕분에 목이 마르던 찰나에 언니가 소싯적 나무타기 솜씨를 발휘에 따준 수분 가득한 잠부를 맛 볼 수 있었다.

## :망가망가

8기 티모르팀은 한 달 단위로 총무를 돌아가면 담당하고 있는데 11월 총무는 dona!!

dona와 natalia를 망고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센터주변에 망고가 실린 리어카가 지나가면 maun를 외치며 달려 나가서 튼실한 망고를 들을 고른다. 이러한 날들이 계속 된 나머지 이제 단골가게 아저씨들은 센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리와 눈을 마주치면 망고를 뜻하는 티모르어 has가 있는데 망가망가를 외친다능...



잠부 따러 나무에  
올리간 스텝언니와  
깨알 그녀의 사촌

# 나의 효과, 나비 효과 - 동티모르 팀의 이야기



동티모르 단원들, 9월부터 11월달 동안 “나의 효과, 나비효과” 실천한 소감이 어떠한지요?

솔직히 라온아띠 활동하면서 나의 효과 나비효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생각이 날 때 실천하려고 하지, 생활 속에 잘 녹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순간의 귀찮음이 있기도 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 중 하나는 빨래를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과, 샤워 할 때 물 사용을 줄이려고 한다.



나의 효과 나비효과를 실천하려 했던 것 보다, 낮에는 불 끄고 다니고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했었다. 실습을 하러 나갔을 때 환경교육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실천을 시작했다. 하지만 티모르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 사용량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샤워할 때 물 아껴 쓰는게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의식을 하고 실천해야겠다는 반성을 한다.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음료 테이크아웃은 텀블러 사용, 물 아껴 쓰기는 스스로 상기시켜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캔 모으기로 했던 것을 우리 팀이 다 잊고 있었다. 앞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

아, 그렇다. 앞으로는 안 쓰는 박스에 캔을 모아서 버리도록 해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불 끄기, 설거지 세제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가방에 비닐봉지를 항상 준비하고 다녀서 필요할 때마다 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은 물 아껴 쓰기다. 집에서는 대야와 욕조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방식으로 아껴 썼는데, 여기는 대야와 욕조가 없으니 물을 그냥 흘려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샤워할 때 물을 약하게 틀어 놓고 한다.

나는 샤워할 경우 내가 샤워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 놓는다. 간단하게 할 때는 2곡정도로 잡고, 비누도 적게 사용한다.





나는 점심이나 오후에는 불을 안 키려고 노력하고, 잘 때는 에어컨 사용시간을 예약하고 잔다. 샤워할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한번에 물로 헹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완전히 생활화 되지는 않아서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을 들어 봤는데 센터에서 활동할 때는 어떤 것 같아?

나는 센터에서 아띠 끌라세 - 미술시간에는 물감을 이용할 때 물통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고, 모자이크를 할 때는 신문지를 이용했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출근 할 때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네. 그것도 포함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동티모르 팀은 각자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미숙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노력하는 동티모르 팀이 되도록 하자!!

By. 김창숙

# 혼자서 끄적끄적 개인소감:)



DONA는  
11월에도 잘 지내고  
있어요!~~

# 11월의 마음

11월달에는 중간평가를 준비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활동해오며 내가 받았던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도전을 하면서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고 고민이라 생각했던 것을 내가 한층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바꿔 생각하니 받아들이기 한결 쉬어졌어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도전들을 정리하니

-첫 번째, 나의 욕심과 타협하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미 끌라세도 그렇고 생활하는 중에 생기는 나의 욕심을 인정하고 마주보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내 욕심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빨리 배우라고 독촉을 하고 내 의견만은 고집하려는 욕심을 마주보게 되었지요.

-두 번째,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정확히 정의 내리기 힘들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나도록 회피하다 생각했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동티모르를 느끼고 오자' 이렇게 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생각에 그쳤던 나의 생각을 그게 바로 너의 목표라고 팀원들이 일깨워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공동체와 개인의 선은 어디까지인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기준과 다른 팀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팀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은 팀원들과의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라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팀원들이 기분을 상하게 한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어렵다고 이 소통을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솔직히 나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통해 합의를 하기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으레 겁먹고 소통을 할 시도를 안 한다면 더욱 큰 고통이 찾아오죠. 특히 같이 사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러한 것 같아요. 이번 한 달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하며 팀원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아갈 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중간평가를 하고, 거기다 첫번째 타자를 맡게 되어서 부담이 컸던 11월이었어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중간평가 준비도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단순히 중간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음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가서 '이때 좀 더 열심히 할 걸...'이란 생각이 최대한 안 들도록 말이에요. 더욱 재밌고, 알차게 보내도록 노력합시다!!

# 나만의 중간평가



11월은 왠지 정신 없는 한 달이었다. 순식간에 11월이 다 지나가 버렸다. 이번 달엔 중간평가를 통해 팀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 스스로 나와 주변의 관계, 그리고 활동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란 주변의 사람과 주어진 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내 방식으로만 라온아띠 활동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을 내 생각 내 시선으로만 이해하려 했을 뿐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활동 자체보다 활동을 통한 고민이 더 많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라온아띠는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것, 팀으로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개인 개인이 분리된 넷이 모인 것이 아니라 라온아띠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나에게겐 버거웠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는데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정체성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했다. 이 생각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사실 아직도 이게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쑥불쑥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나만의 강한 주관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갈 것이다. 이는 센터와 라온아띠 전체 활동을 관통하는 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을 찾아서 조금씩 바뀌나간다면 중간평가 이후의 활동이 더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세련됨과 예쁜 포장으로 가득 차 있던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진짜 알맹이 그것도 놀랍도록 부정적인 면으로 가득 찬 나를 만났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나부터 이런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바뀌간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라온아띠를 통해 내가 잊고있었던 외면하고 있었던 내 삶의 다른 부분을 일깨우고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길. 그리고 지금의 치열한 고민으로 인해 라온아띠가 끝나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길 바란다.

시간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걱정이 불쑥 불쑥 솟아오른다. ‘남은 두 달을 과연 잘 지내고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을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을 뿐!

# 호진이 이야기

**11월**은 9월이나 10월과 비교하면 굉장히 바빴던 달이었어요.

먼저, 저의 탄신일이 있었고 (하하하하), 저희 팀 중간평가가 있었고, 아띠 끌라세의 첫 8주를 마치고 남아 있는 8주를 시작하는 때가 있었고, 10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11월 보고서를 준비하는 때도 있었지요.

11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라온아띠로써 동티 모르에서 살아가는 나날들 가운데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나온 시간 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겠지요? 그래도 11월은 우리를 많이 바쁘게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제대로 그리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계기와 힘을 주었어요.



11월 초, 제 생일날에는 센터 스태프 분들과 그곳에 오는 어린 친구들이 절 많이 축하해주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보기는 또 처음이었지요. 오전에는 어린 친구들이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얼굴에 엄청난 축하를 해주고, 오후에는 진흙과 페인트로 얼굴을 예쁘게 꾸며주었지요. 하하하하.

라온아띠로 다른 나라에서 지내면서 생일을 맞게 되다니, 참으로 기분이 묘했어요. 그 날은 정말 지금까지 제 생일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어린 친구들이 만들어준 꽃 장식을 한 진흙 케익과 간사님들이 만들어준 음식들과 맛있었던 호텔 조식 그리고 팀원들이 준 예쁜 선물까지.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저를 축하해주는 마음들이었어요. 그 마음들 덕분에 남은 시간들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힘과 주변 사람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지요. 여기 동티모르에서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고, 제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띠 끌라쎬 앞의 8주를 마무리하고, 뒤에 남은 8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어 교실을 맡았어요. 저는 이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말을 알리고자 맡았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저처럼 외국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비록 이미 동티모르에서는 여러 외국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영어 등)를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종이접기 교실과는 다르게 청소년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은 진행하기 수월했어요.

아이들 보다는 집중을 잘 해주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아직 제 떼뚱어가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명을 못 알아들을 때가 종종 있더라구요. 덕분에 한동안 뜸했던 떼뚱어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를 한국어 교실이 마련해 주었지요.

저희 팀은 가장 먼저 중간평가를 했어요.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국민은행 관계자 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했어요. 하지만 막상 중간평가를 해보니 그것은 기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딱딱했어요.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Cristu Rei' 예수상도 구경하러 가고, 참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살짝 있어서 괜히 혼자 딱딱해졌나 봐요. 하지만 중간평가를 통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점검하고 제 자신도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번 달에는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티모르에 와서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지요. 그 전에는 그저 한국이 그리우고, 서울에 있는 집이 그리울 뿐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들이 센터 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봐도 너무나 놀랍네요.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 그릇이 아직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일까요? 앞으로는 제 그릇을 키우는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11월에는 2주정도 양동화 간사님과 같이 지냈어요. 간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대화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지금까지는 동티모르에 대해 궁금증도 많이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매일 궁금증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마이크로렛을 타고 다니면서, 센터에서 있으면서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궁금한 것은 센터 스태프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동티모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과연 동티모르를 떠날 때 제 그릇은 얼마나 커져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될까요?**